

탈춤·고싸움·음악회… 전남광주, 한가위 즐길거리 ‘풍성’

광주역사민속박물관, 탈춤 한마당
광주미술관서 비엔날레 연계 전시
음악회·축구대회 등 자치구별 행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석 연휴 동안 광주의 자치구별에서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국립광주박물관과 광주역사민속박물관, 국립광주과학관 등에서는 전통문화 체험과 공연이 펼쳐지고, 광주미술관에서는 광주비엔날레 연계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전시를 선보인다. 자치구에서도 고싸움놀이와 음악회,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진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흥겨운 탈춤 한마당’을 열어 전통 탈춤공연과 민속놀이터를 운영한다.

같은 기간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2026년 한가위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특별전 연계 ‘힐끗 만들기’를 비롯해 ‘소원을 들어주는 달항아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와 특별전 미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지난해 열린 한가위 고싸움놀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광주과학관에서는 24일과 26~27일 ‘한가위 특별행사’가 열린다. 제기차기·투호·윷놀이·활쏘기를 비롯해 전통악기, 상모돌리기, 소고 배우기 등 다양한 전통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27일에는 한가위 과학실험쇼와 솜사탕 풍선 퍼포먼스 등 과학문화공연도 펼쳐진다.

광주미술관에서는 오는 11월15일까지 이탈리아 토리노 교류전 ‘번안된 풍경 제2장: 토리노에서 광주까지’와 제16회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해 카지노 룩셈부르크 파빌리온 ‘사마귀의 날(The Day of the Mantis)’, 몽골 파빌리온 ‘영

원하고도 먼 것: 집단 기억과 동시대의 도전들’ 등이 진행된다.

자치구 곳곳에서도 추석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마련된다. 남구에서는 24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에서 ‘윷놀이 고싸움놀이 달맞이’가 열린다. 고싸움놀이 공연과 함께 송편 만들기, 그림책 만들기 체험이 운영되며, 투호·제기차기·윷놀이 등 전래놀이와 큐알(QR)퀴즈도 즐길 수 있다.

서구에서는 22일 오후 7시 내방어린이공원에서 ‘한가위 달빛음악회’가 열려

주민들이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북구 각화주공단지에서는 22일 오후 2시 ‘2026 도심 속 힐링선율 작은음악회’가 열린다. 각화어린이집의 식전공연에 이어 색소폰 앙상블이 트로트와 영화 OST, 대중가요 등을 들려준다.

광산구에서는 24일 오후 6시 삼도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제13회 삼도동 주민 화합 추석 노래자랑’이 열려 식전공연과 기념식, 주민 노래자랑,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25일부터 27일까지 월전공원과 용동공원에서는 추석맞이 광산구청장배 전국이주노동자 축구대회가 열려 리그와 토너먼트 방식의 축구경기와 시상식 등이 진행된다.

신신하 문화정책과장은 “추석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전통문화 체험부터 공연, 전시까지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마련했다”며 “광주 곳곳의 문화공간에서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의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교육청

‘초등 방과후·돌봄 플랫폼’ 개통

부산시교육청이 초등 방과 후·돌봄 관련 서비스를 한데 모은 초·중·고등 방과 후·돌봄 통합 플랫폼을 정식 개통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련 서비스는 부산 초등 방과 후·돌봄 지원센터, 방과후학교 업무지원시스템, 방과후학교 심사지원시스템, 늘봄학교 서비스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 때문에 학생·학부모와 학교 업무 담당자가 각각 별도 계정으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교육청은 분산된 기능을 통합해 하나의 아이디로 주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진안군

20회 전북장애인체전 종합우승

진안군이 제20회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진안군에서 처음 열린 대회에서 거둔 성과여서 의미를 더했다.

진안군 선수단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안군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참가해 종목별 경기에서 고른 기량을 펼쳐며 종합 순위 1위에 올랐다.

선수들은 경기마다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경쟁을 이어갔다. 꾸준한 훈련으로 다진 실력을 앞세워 종목별 경기에서 잇따라 좋은 성적을 거두며 종합우승을 이끌었다.

/진안(전남광주)=허남근 기자 nk1378@

영덕군

강구해상대교 정식 개통

영덕 강구지역의 새로운 교통축이 될 강구해상대교가 22일 오전 10시 개통했다.

2021년 11월 착공한 강구해상대교 건설공사 는 약 5년간의 공사 끝에 현재 전체 공정률 99%를 기록하며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강구리와 오포리 구간은 각각 2022년 8월과 12월 실착공에 들어갔다. 이후 2023년 6월 말 뚝공사를 완료했으며, 2024년 6월 교량 하부공과 같은 해 12월 IPC·DCB 방식의 거더 거치를 마쳤다. 지난해 8월에는 교량 상부공까지 완료했다.

현재 비(非)교량 구간 마무리 공사와 도로 및 시설물에 대한 최종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김천에 ‘반도체 유리기관’ 생산거점 구축

제이엔티씨, 2030년까지 3470억 투자
430여명 신규 고용하고 사업 확대

경북도와 김천시는 21일 김천시청 강당에서 첨단 제조기업 ㈜제이엔티씨와 반도체 유리기관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제이엔티씨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약 3470억 원을 투자해 김천1일반산업단지(3단계) 일원에 TGV 유리기관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430여 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김천을 차세대 생산거점으로 구축해 관련 사업도 확대한다.

TGV(Through Glass Via·유리기관 관통홀)는 유리기관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미세 전극과 배선으로 양면의 전기 신호를 연결하는 기술이다. 제이엔티씨는 글라스 절단, 레이저 글라스 관통, 에칭, 도금 등 TGV 핵심 공정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TGV 유리기관과 HDD 유리플래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장상욱 제이엔티씨 회장, 배낙호 김천시장, 장상욱 제이엔티씨 회장과 임직원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도와 김천시는 기업 수요에 맞는 부지를 제안하고 입지 검토부터 투자 협의까지 이어왔으며, 투자가 원활하게 추진 되도록 행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터 등 신제품 양산을 앞두고 있다.

체결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배낙호 김천시장, 장상욱 제이엔티씨 회장과 임직원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도와 김천시는 기업 수요에 맞는 부지를 제안하고 입지 검토부터 투자 협의까지 이어왔으며, 투자가 원활하게 추진 되도록 행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남 노후산단 66곳 ‘맞춤형 처방’ 나서

맞춤 사업 모델·대응 방안 마련

경남도가 노후 산업단지 66개소에 대한 실태 분석을 마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처방’에 나선다.

도는 올해 2월부터 경남연구원에 의뢰해 추진한 ‘경상남도 노후산업단지 전수조사’ 및 ‘산업통상부의 노후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공모 연계형 사업모델 연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착공 후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2025년 12월 기준)는 국가 산업단지 7개소, 일반산업단지 9개소, 농공단지 50개소 등 66개소로 파악됐다. 이에 도는 올해 초부터 18개 시군과

노후 산업단지 66곳을 대상으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해 산업단지별 기반시설 현황과 노후도, 기업·근로자의 개선 수요, 정부 공모사업 추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현황 파악에 그치지 않고 경남연구원 정책연구과제와 연계해 산업단지별 특성과 현장 수요를 분석하고, 향후 정부 공모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사업 모델과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경남연구원은 노후 산단 입지 여건과 시설 현황, 기업·근로자 수요 조사 등을 바탕으로 산업단지별 개선사업 모델로 등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청년유입형을 제시했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해남~인천공항 직통 교통망 개통

고속버스 내달 1일 운행

해남에서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고속버스 노선이 오는 10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해남군은 군민들의 인천공항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해남~인천공항 고속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본격 운행한다.

이번 노선은 금호고속이 운행하며, 해남을 출발해 영암을 거쳐 인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까지 연결하는 노

선으로 1일 1회 운행한다.

상행은 해남 00:05 출발 → 영암 00:35 → 인천공항 제1터미널 04:35 → 제2터미널 05:00 도착이며, 하행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 07:50 출발 → 제1터미널 08:15 → 영암 12:30 → 해남 13:00 도착하는 일정이다. 운행요금은 6만3,300원이며, 심야 운행요금은 7만5,900원이다. 이번 노선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교통부의 시외·고속버스 운임 9% 인상에 맞춰 운행을 시작한다.

/해남(전남광주)=이대호 기자 eogh7505@



21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경로당 건강 프로그램 발표대회’에서 박수현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주요 내빈과 지역 어르신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어르신 지혜는 충남의 소중한 자산”

충남도,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충남도가 제30회 노인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 온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경로당 기능 강화 등 노후 복지 증진에 나선다.

충남도는 21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박수현 지사와 조철기 도의회 의장, 이병도 도교육감, 박기영 도의회 부의장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호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충남도와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가 공동 주최했다.

행사는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를 시작으로 노인의 날 기념 유공자 표창, 기념사와 축사, 청려장 증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적박했던 들과 바다를 일구고 일터에서 땀 흘렸던 어르신 여러분의 노력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삶의 지혜는 충남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